

하늘. 사랑

AUGUST 2025
vol. 530

8

cover story

썬더볼트

2024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이명호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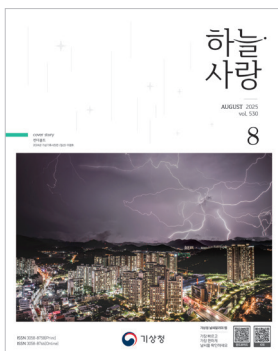
하늘 사랑

vol. 530

8

AUGUST 2025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5년 8월 5일
발행인 장동연
편집장 홍기만
편집기획 김승민, 마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ver story

쎌터볼트

2024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이명호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 편

04

낙뢰연보,

디지털 행정구역 낙뢰 정보로 더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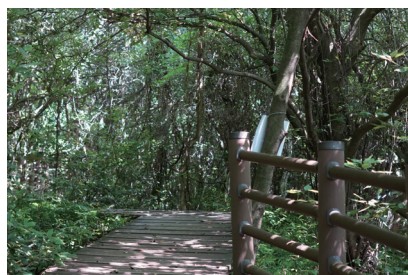
- 06 한여름에 가을 태풍을 생각하다
- 08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한여름 숲강스 떠나 볼까
- 10 열대야에는 '감정 경보'
- 12 엄마의 누명

Theme Story

- 14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5년
- 16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사용자들의 진짜 목소리
- 18 제주에서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플로깅데이
- 20 세상의 모든 육아 엄빠를 응원합니다!
- 22 경기도민의 시간은 새벽에 시작된다 - 먼저 도착한 계절
- 24 지진 대응 ON_ 세계는 지금: 일본

Report

- 26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7 Platform
- 28 오늘, 당신의 날씨



기상청사람들

예보관의 시선으로 만나는
생생한 날씨 현장!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 편



기상청 대변인실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기상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사랑> 8월호에서는 지금은 기상청을 떠났지만 날씨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대로인 퇴직예보관과 함께하는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을 소개합니다.

"퇴직한예보관, 왜 다시 기상청 유튜브에 나왔을까?"

기상청 유튜브 콘텐츠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보관으로서 수년간 날씨를 전해온 한 사람이, 퇴직 후에 날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일상을 함께 체험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콘텐츠입니다.

"왜 이 콘텐츠를 기획했을까?"

러닝, 등산, 농업 등 다양한 삶과 일상 속에서 '날씨'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날씨에 민감한 고관여 집단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날씨 활용법과 기상청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전직 예보관이자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언구 사장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기상청을 퇴직하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날씨 관련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등 여전히 하늘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상청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또는 전직 예보관이었기에 날씨를 소비하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쌓여있던 오해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제안에 공감한 그는 출연을 수락했고, 그렇게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날씨를 책임졌던 예보관, 이제 는 화물을 책임지는 남자가 되었다!

기상청을 퇴직했지만, 그는 여전히 날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Ep1. 러닝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운동, 러닝!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동호회(크루) 중 하나인 '여의도 러닝크루, YRC'와 함께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오히려 '런데이'라 부르며 꿀팁을 아낌없이 전해준 러너들 덕분에~ 날씨 즐기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기대 이상으로 활기참고, 인터뷰도 유쾌했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은 마포대교를 달리다 저질(?) 체력으로 결국 낙오하는 웃픈(?)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



Ep2. 사진

사진 고수들만 안다는 벚꽃 출사 명소, 서울현충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동작구지부’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계절의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작업인데요. “꽃이 피는 시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아쉬움을 전하던 작가님들은, 위성 영상을 보면서 구름의 흐름을 확인하고 출사 일정을 조율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씨를 ‘기다리고, 기록하고, 존중하’는 그들의 태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예보 정확도에 대한 유쾌한 농담에서 기상청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촬영 내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 무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



Ep3. 낚시

대한민국 취미 1위, ‘낚시!’ 섭외는 가장 힘들었지만, 어렵게 성사된 촬영에서 만난 동호회 ‘All Round Fishing’ 낚시인들과의 하루는 정말 유쾌! 상쾌! 통쾌! 그 자체였습니다. 낚시 입문자인 퇴직예보관이 인생 첫 낚시에서 참돔 두 마리를 낚아 모두가 환호했고, 직접 잡은 참돔으로 즐긴 회 먹방까지 더해져 영상은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낚시 고수들은 “풍랑특보만 아니면 낚시는 간다”며 낚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퇴직예보관은 기상청 예보관 출신답게 기상청의 해양기상정보포털을 소개하며 실전 활용 꿀팁을 전했습니다. 😊



Ep4. 양봉

러닝, 사진, 낚시에 이어 이번엔 생업과 밀접한 양봉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와 유튜브 댓글 속 추천이 계기가 되어, 양봉 업계에서 잘 알려진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벌들과의 첫 만남부터 꿀 수확, 벌집꿀 아이스크림 먹방까지~ 그야말로 ‘꿀 같은 하루’였는데요. 양봉은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작업이지만, 특히 비가 오기 전에는 꿀을 미리 수확해야 할 만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양봉 고수는 “날씨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상청 누리집에서 과거 날씨 자료를 자주 확인한다”며, 날씨 변화에 따라 작업 일정을 조율하는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기후와 날씨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기상정보가 단순한 예보를 넘어 생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비록 기상청을 퇴직했지만, 날씨를 떠나지 않았다.”

퇴직한 예보관의 이름으로 다시 현장을 누비는 이 콘텐츠는, 단순한 직업 체험 영상이 아닙니다. 날씨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날씨가 곧 일상인 이들의 삶을 예보관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날씨 예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날씨 때문에 희로애락을 겪고 계신가요? 기상청 예보나 날씨에 대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전직 예보관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기상청 대변인실로 연락 주세요. 퇴직예보관과 함께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상청 유튜브 콘텐츠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뢰연보, 디지털 행정구역 낙뢰 정보로 더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정우미 기상레이더센터

지난해 나무 옆에 떨어진 낙뢰를 맞고 쓰러졌던 한 교사가
28일 만에 기적같이 살아난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낙뢰를 맞았는데 살아나는 일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천둥 번개는 언제나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확인해서 정말 사고가 내 일이 아닐 수 있도록 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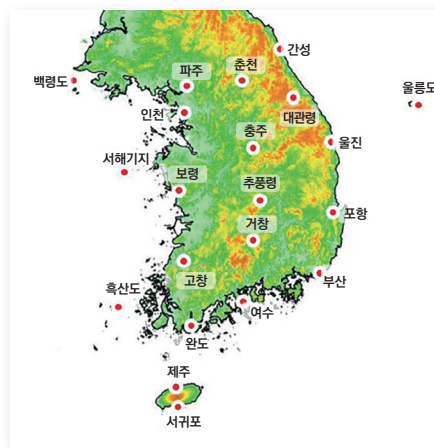
낙뢰,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우르르 광광!’ 천둥 번개는 소나기와 함께 흔히 발생하는 여름철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총 14만 5천 7백여 회의 낙뢰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관측된 연평균 낙뢰 횟수(약 10만 회)보다 43.83%나 더 많은 수준이고, 2023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가량 더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낙뢰는 통상 여름철(6~8월)에 집중되는데, 작년에는 무려 연간 총 낙뢰의 84%가 여름철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낙뢰가 많이 발생했던 8월 5일에는 경기도, 경상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연간 낙뢰 횟수의 19%에 달하는 2만 7천 회 이상의 낙뢰가 기록되었고, 양평군에만 무려 2,500회 이상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낙뢰는 특정 시간과 지역에 급격히 몰려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낙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낙뢰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새롭고 빠른 실시간 낙뢰 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낙뢰는 발생 순간이 짧고 강력하므로, 무엇보다
‘얼마나 빠르게 알 수 있느냐’가 대응의 핵심입니
다. 기상청은 전국에 설치된 21개소 낙뢰 관측 센
서에서 관측된 정보를 분석하여 낙뢰 발생 위치,
시각, 극성, 강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낙뢰 정보는 날씨누리, 기상레이더센터 누리집에
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날씨알리미 앱
에서는 푸시 알림으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매년 기록된 낙뢰의
지역별 일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듬해
낙뢰 연보를 발간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낙뢰 예방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낙뢰 관측망(21소)



낙뢰 관측 장비(추봉령)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듬해에 ‘낙뢰연보’로 제공하던 낙뢰 정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구역 기반 낙뢰 정보 조회 서비스’로 새롭게 빠르게 제공합니다. 도·광역시는 물론 시군구 단위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낙뢰 횟수와 단위면적당 낙뢰 횟수 정보를 실시간 또는 원하는 기간에 대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구역 기반 실시간 낙뢰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현재 기상레이더센터 누리집(<https://radar.kma.go.kr>)의 낙뢰영상 > 낙뢰횟수 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도 접속해보세요

기상레이더센터 누리집

디지털 행정구역 낙뢰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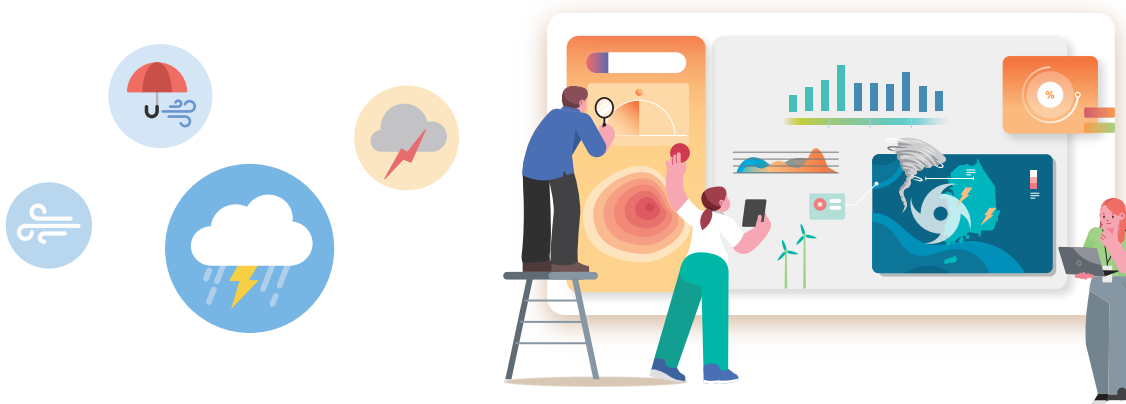
지역	낙뢰횟수	단위면적당 낙뢰횟수(회/100km²)
서울특별시	391	0.65
부산광역시	371	0.48
대구광역시	1,430	0.95
인천광역시	613	0.58
광주광역시	255	0.51
대전광역시	408	0.79
울산광역시	918	0.87
세종특별자치시	200	0.43
경기도	10,809	1.06
충청북도	3,453	0.41
충청남도	7,433	0.9
전라남도	6,505	0.53
전라북도	8,836	0.48
경상남도	10,856	1.03
제주특별자치도	965	0.52
강원특별자치도	7,883	0.47
전북특별자치도	2,203	0.52
합계	63,537	0.63

※ 행정 구역 조정(국립) 적용으로 낙뢰연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낙뢰, 이제는 디지털 스마트 재난 대응으로

스마트폰으로 기온이나 강수량을 확인하듯, 이제 낙뢰도 디지털 행정구역 기준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실시간을 포함한 최근 3년 낙뢰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향후 기간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낙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디지털 행정구역 낙뢰 정보가 낙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통계정보의 제공을 넘어, 전력 시설이나 발전소, 건설 현장, 화학 공장 등 낙뢰가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 판단과 시설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민간의 주요시설이나 개별 지자체의 낙뢰 재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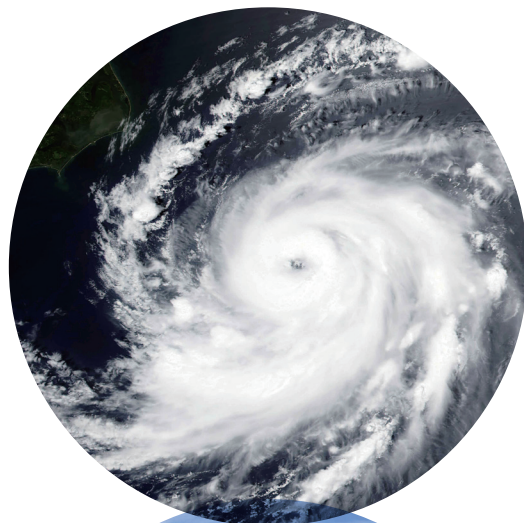
한여름에 가을 태풍을 생각하다

박재용 작가

8월은 여름의 절정이지요. 비가 오는 날보단 맑은 날이 많고, 푸른 하늘 곳곳에 뭉게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귀로는 매미 소리를 듣는 시기입니다. 옛날에 매미채를 어깨에 기대어 들고 벗짚 모자를 쓰고, 신작로를 따라 방학 숙제로 해 갈 곤충 채집을 하러 동네 뒷산으로 가던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8월은 태풍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태풍은 8월에 가장 자주 한반도를 찾곤 했지요.

태풍은 대부분 북태평양의 열대 바다에서 생깁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4, 5월에 시작해서 늦게까지는 10월까지 계속 생기지요. 처음에는 열대 저기압이었다가 점차 바다의 열을 흡수하고, 수증기를 흡수하며 태풍으로 자랍니다. 보통 한군데 머무르기보다는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중위도 지방으로 올라오지요. 하지만 편서풍의 영향이 약한 봄철과 초여름에는 한반도로 올라오기보다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대만 중국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뿐이지요.

그러다 점차 편서풍이 강해지는 여름이 되면 이제 태풍의 최종 목적지가 서해나 한반도, 일본이 됩니다. 보통 7~9월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늦여름이나 초가을 태풍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20세기까지 우리나라에 오는 가을 태풍이 많이 없었고, 또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니다. 이유는 바다 때문이지요.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 남쪽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가을이니깐요.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나는 동안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대부분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우리나라에 상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의 태풍발생통계 자료¹를 원데이터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1961년에서 199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와 1991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 그리고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는 연간 평균 3.2개, 3.4개, 3.6개로 조금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의 태풍으로 한정해서 계산하면 0.3개에서 0.8개, 0.9개로 전체 평균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960년에서 1990년까지는 9월 이후의 태풍이 3년에 1개꼴이었던 반면, 21세기에는 한 해에 한 개꼴로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9월 이후 발생한 태풍의 총개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와 같은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면 11.0, 10.3, 10.8로 오히려 아주 조금이지만 줄었거든요.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남쪽 바다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 남쪽, 즉 남해와 남중국해 바다 온도가 내려가서 그곳을 지나던 태풍이 세력을 잃고 열대성 저기압이 되면서 소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이 되어도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이라면 소멸했을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혹은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에 대한 저항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일본 동쪽 태평양이나 일본으로 갈 태풍이 그냥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죠.

또 바다가 뜨겁다 보니 태풍의 위력이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 중심 기압과 풍속 기준으로 그 위력이 가장 강한 태풍 10개 중 7개가 21세기에 발생했습니다. 매미, 힌남노, 루사, 곤파스, 볼라벤, 차바, 나리가 그것이죠. 그중 루사, 볼라벤은 8월, 매미, 힌남노, 곤파스, 나리는 9월에 차바는 10월에 발생한 태풍입니다. 21세기에는 9월 이후 태풍의 위력이 더 강했던 거죠.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1. <https://www.weather.go.kr/w/typhoon/typ-stat.do>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한여름 숲캉스 떠나 볼까

박은하 여행작가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 올해는 예년보다 빠르고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효합니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기에 온열질환 예방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여름 제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태양별 내리쬐는 해수욕장보다는 나무가 반겨주는 숲을 택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숲이 주는 평온함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짙은 녹음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깊은숨 한 번. 숲은 우리에게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연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쉼을 선물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고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숲캉스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무더위도 잠시 잊게 됩니다.



숨겨진 숲의 생명력을 만나는 제주 꽃자왈

제주 꽃자왈을 천천히 거닐면, 마치 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듯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꽃자왈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숲 지형입니다.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진 울퉁불퉁한 바위와 그 위를 덮은 이끼, 고사리, 덩굴식물,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오랜 세월 자연이 스스로 빚어낸 거대한 생명의 요람입니다.

꽃자왈에 들어서면, 숲길을 따라 부드러운 흙과 바위의 감촉이 발끝에 느껴 집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짙은 녹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오감을 깨웁니다. 꽃자왈은 평지와 산림, 습지와 암반이 복잡하게 얹혀 있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이곳의 숲길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초록 공기가 피부를 감싸고, 바람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합니다. 바위틈 사이로 흐르는 물, 이끼에 스며드는 빗물, 그리고 그 위를 스치는 바람까지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숲 전체에 퍼지는 피톤치드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꽃자왈은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한데요. 운이 좋으면 숲속을 조심스럽게 오가는 노루나 제주 특유의 새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곳은 제주도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희귀식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도 유명합니다. 꽃자왈의 숲길을 걷다 보면, 자연이 품은 생명의 다양성과 그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여름 제주도 여행을 가면 많은 이들이 실내 관광지를 찾지만, 꽃자왈만큼은 예외입니다. 나무가 뽀뽀하게 들어선 숲에는 잎과 가지가 햇빛을 가려주고, 땅 위로 드리운 그늘이 지면 온도를 낮춰줍니다. 같은 날씨 조건에서도 도심이나 벌판보다 2~5도 정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숲을 걸으면,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숲의 소리와 향, 그리고 촉촉한 생명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를 필요도, 급할 것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낸 숲의 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자연과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삼나무 숲이 전하는 초록 인사, 절물의 절경

제주 절물휴양림은 1997년 문을 연 제주 최초의 휴양림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삼나무 조림을 시작해 현재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 나무가 심어질 때는 사람 키보다도 작았을 텐데 지금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시간이 만들어 낸 거대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양림은 산책로를 비롯해 약수터, 폭포, 연못, 잔디광장, 목공예체험장,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됩니다.

산책로는 비교적 경사가도가 낮고 계단이 없어 누구나 쉽게 숲강스를 즐길 수 있어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 우산을 들고 숲길을 걷자 촉촉한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삼나무는 선명한 초록빛을 드러냈고, 나무껍질도 평소보다 한층 짙은 갈색으로 변했어요. 피톤치드 향이 코끝을 스치니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삼나무 숲길을 걷다가 노루도 만났습니다. 눈을 마주친 노루는 조심스럽게 귀를 쫑긋 세우더니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절물휴양림은 야생 노루의 주요 서식지였어요.

비 오는 날, 삼나무 숲을 거닐면 귀가 트입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평소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가 하나둘씩 귀에 들어옵니다.

‘절물’이라는 숲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절물’은 ‘좋은 물’이라는 뜻의 제주 방언인데요. 예로부터 이곳에서 맑고, 좋은 물이 흘러나와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숲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계곡물 소리가 들려와요. 좋은 기운과 치유의 힘이 함께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삼나무가 수십 년에 걸쳐 자란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숲을 거닐었어요. 빠르고, 바쁘게만 살아온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천천히 자연을 만나고 왔습니다.



열대야에는 '감정 경보'

오현주 작가

8월, 아침부터 후텁지근하다. 해가 뜨기도 전, 기온이 30℃를 웃도는 날이 잦고, 최근 들어 한낮 기온이 40℃ 안팎까지 치솟는 이상 기온 현상도 빈번하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태양의 복사열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형상 같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도 이러한 고온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전망한다¹. 실제로 작년 서울은 폭염일수는 24일, 열대야는 39일을 기록하며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겪었다². 도시 지역은 특히 열섬(urban heat island) 현상으로 인해 야간기온마저 떨어지지 않아, 더위는 일상을 압박한다.

인간에게 여름은 감각 자극이 과도한 계절이라고 한다. 뜨거운 공기, 끈적이는 습도, 강한 햇볕,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땀과 냄새가 뒤섞인 도시의 공기. 이런 요소들은 자율신경계 항진을 유발하며, 신체뿐 아니라 감정까지 쉽게 피로하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 과부하(sensory overload)라고 부른다³. 반복적인 환경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경계 모드로 전환되고, 과민 반응이나 정서적 소진, 주의력 저하 등의 반응이 증가한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인지적·정서적 자원이 고갈되는 하나의 생리적 현상이다.

문제는 잇따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열대야가 지속되면 깊은 수면이 어려워지고, 숙면이 단절된다. 수면 부족은 정서 조절력과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는데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 것이다. 회복하지 못한 몸과 마음은 예민함이나 탈진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서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울리는 건 체온계의 경고음만이 아니다. 말 없는 감정이, 기척 없이 번아웃을 알린다. 뜨거운 온도만큼이나 감정도 가열되며, 그 경보는 무기력과 예민함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도, 내면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다.

1. 기상청. (2025). 「2025년 여름철 전망」

2. 기상청. (2024). 「기후통계: 서울 연간 기온 및 폭염일수」

3. Arnsten, A. F. T. (2009). Stress signalling pathways that impair prefrontal cortex structure and funct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0(6), 410-422.

4. Walker, M. (2017). *Why we sleep: Unlocking the power of sleep and dreams*. Scrib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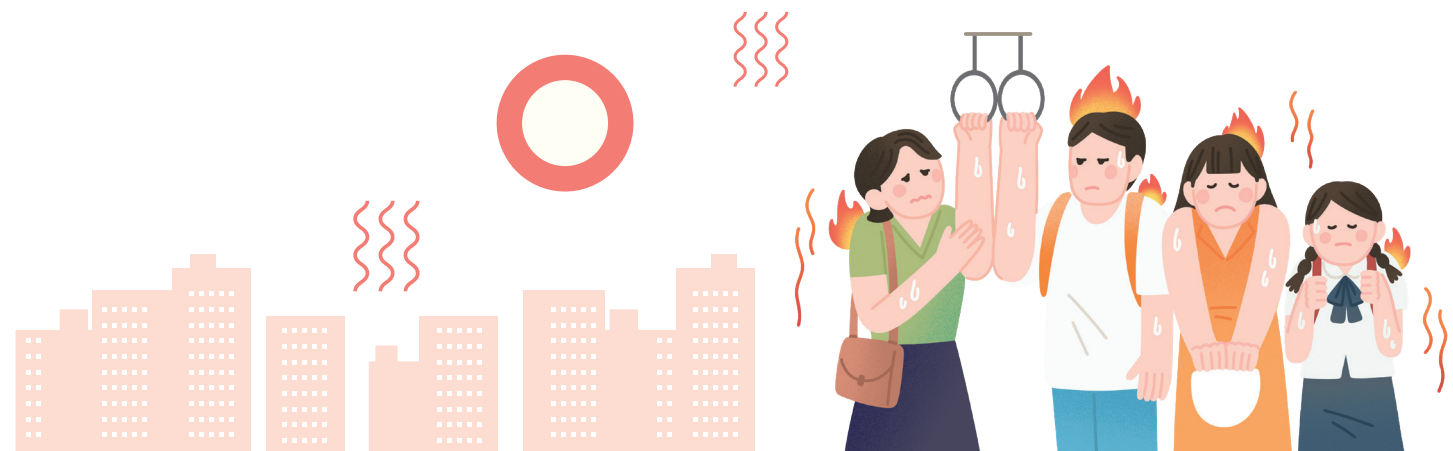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결국 정서적 탈진 상태로 이어진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숨이 가빠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기보다 방어부터 하게 되는 정서 에너지 고갈(emotional depletion) 상태다. 감정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 감정 상태를 솔직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운 날 차가운 물 한 잔이 필요하듯, 감정에도 선풍기를 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10분의 낮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저녁 시간, 소음을 줄인 산책, 과한 대화를 줄이는 일. 이러한 마이크로 브레이크(micro-break)는 정서적 과부하를 덜어내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휴식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5,6}. 또한 반복되는 자연의 자극이나 조용한 환경은 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에 따르면, 나뭇잎 흔들림이나 빗소리처럼 부드러운 자극은 지친 인지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유익하다⁷.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 그 작은 쉼표들이 쌓이면, 다시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갈 힘이 생긴다. 바깥 기온이 뜨거울수록,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다. 계절에 지치는 시기, 마음도 쉬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8월은 여름의 시작일까? 여름의 끝일까? 9월을 앞둔 여름의 끝이기도 하다. 더위를 이기는 마음의 선풍기를 틀자.

5. Sluiter, J. K., Frings-Dresen, M. H., Meijman, T. F., & Van Der Beek, A. J. (2000). Reactivity and recovery from different types of work measured by catecholamines and cortisol: a systematic literature overview.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7(5), 298-315.
6. Trougakos, J. P., & Hideg, I. (2009). Momentary work recovery: The role of within-day work breaks. In *Current perspectives on job-stress recovery* (pp. 37-84).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7. Kaplan, S. (1995). The restorative benefits of nature: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3), 169-182.





엄마의 누명

전 채은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꼭 이맘때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 방학을 맞아 지방에 사는 이모네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 동년배의 사촌들을 만나니 신이 나 밤까지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놀았다. 온 집안의 창문을 다 열어 났어도 땀이 뻘뻘 났다. 덥다고 보채는 딸을 두고 엄마는 혹시나 당신의 자매가 미안한 마음에 에어컨을 틀까 봐 깊이 낮춘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두루두루 다 평범해서 젊은 부부들이 대체로 아껴 살아야 했다. 게다가 20년 전엔 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이 나빠 웬만한 폭염이 아니면 더위는 최대한 참으며 지냈다. 그땐 여름날만큼 집에 손님 오는 게 반가울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엄마도 가족끼리만 있으면 절대 에어컨을 켜지 않는 짚순이였기 때문이다.

맹렬해지는 여름

기상청에 출입하면 철마다 과거의 숫자들을 열어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최근엔 더우니 과거에 얼마나 더웠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새삼 엄마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들이 많다. 한창 자라던 2000년대 초반의 여름 기온을 살펴보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울 날씨였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도 약간의 땀을 뻘뻘 흘리긴 했겠지만, 전기요금에 무서웠던 그녀의 으름장이 순도 100% 거짓말은 아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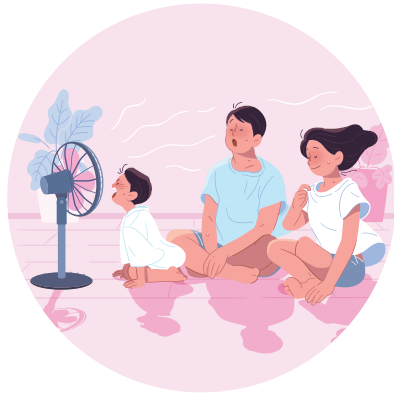
과거 기록을 10년 단위로 평균을 내 살펴보면 1975~1984년 평균 8.7일이었던 전국 폭염 일수는 2015~2024년 16.4일로 1.9배 늘었다. 1995~2004년엔 9.0일, 2005~2014년엔 10.3일이었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보름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전국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나타났다. 1975~1984년 연평균 열대야 일수가 4.6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열대야 일수가 2.4배로 늘어났다. 특히 최악의 더위였던 지난해에는 24.5일, 2018년에는 16.6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났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고백하건대 난 어릴 때보다 안 덥게 지낸다. 밖이야 폭풍 찌지만 20년간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해 준 덕에 에어컨 켜기가 훨씬 덜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 이렇게 더워졌는데 화석 연료를 때 만들었을 전기를 뱅뱅 써대며 과거보다 시원하게 산다. 남의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무섭지만 내 실외기가 뿜어내는 열기에는 관심 없다. 지구가 점점 달궐지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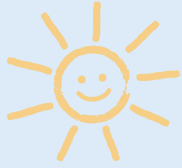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엄마 아빠는 아직 웬만한 더위는 선풍기로 견디려 한다. 비 오는 날이면 여지없이 창문을 여기저기 열어 두고 그 찰나의 찬 기운에 기대보려 하신다. 습하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다.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점점 더워나 추위를 참아본 적 없는 세대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된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지구의 건강이 교차하는 시점을 살았던, 현재의 2040세대가 점점 면목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고 거실에 앉아 있다. 실내 온도가 아마 28도 언저리일 듯한데 하루 에어컨 가동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여 보려고 냉방을 참는 중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 여름날을 그때 그 시절 이후 다시는 살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린 날엔 미처 몰랐다.

지구 온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하다고 하니 아마 이 여름에도 어떤 마지막 풍경이 있을 것 같다.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다’는 강릉을 피서지로 삼는 일은 사라지는 모습이 될까. 점점 종잡기 어려워지는 장마철을 예측해 보는 일도 언젠가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까. 바다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와, 여름이다’로 시작하는 노래는 만들어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라는 말을 할 일은 없을 거란 사실이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5년

조성양 청주시장

우리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궁금해합니다. '비가 올까, 해가 뜰까, 태풍은 언제쯤 지나갈까.' 하지만 그 궁금증 뒤에는 수많은 과학적 원리와 연구가 숨어 있죠. 충주기상과학관은 바로 그 '날씨의 비밀'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주는 발걸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빛나는 눈빛,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까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충주기상과학관을 소개합니다!

충주기상과학관은 어떤 곳인가요?

충주기상과학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70-10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상과학 전문 전시·체험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국립 기상과학관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곳이 정식으로 문을 연 지 어느덧 5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꾸준히 관람객이 증가해 지난해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달성했고, 이제 충주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만나는 공간

충주기상과학관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비, 눈, 구름, 바람 등 다양한 기상현상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설전시관에는 비와 눈, 구름, 바람, 태풍, 태양과 대기 등 기상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와 소나기의 차이, 구름의 생성 원리, 태풍의 생성과 소멸 등 일상에서 궁금했던 날씨의 과학적 원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체험관에서는 기상청 24시 체험을 통해 기상예보관, 기상캐스터 등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영상관에서는 입체적인 영상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를 배우고 기상현상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면 실제로 사용되는 지상·해양 관측 장비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지고 느끼는 과학 놀이터

충주기상과학관은 '즐겁고 재미있게 기상과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과학 LAB'에서는 온도, 기압 등 기상과학에 대해 배우고, 슬러시, 팝콘 등을 활용해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상과학 LAB



기상과학 전시 해설



진로 탐색 교육

기상캐스터 체험 코너 ‘기상청24시’에서는 스크린 앞에 서서 자신이 날씨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며, 누구나 기상 전문가가 된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으로 충주기상과학관은 2021년과 2024년에 ‘진로탐색활동협력’ 분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꼬마날씨교실’, ‘날씨탐구교실’ 등 정기교육(6주 과정)도 운영 중으로, 평일에도 많은 어린이가 과학관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체험학습지로도 인기가 있어, 학교와 기관에서도 찾는 명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상과학이 축제가 되는 날

기상과학은 언제나 진지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충주기상과학관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과학을 놀이처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특별행사입니다. 그동안의 특별행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이끈 프로그램은 세계기상의 날과 어린이날 기념 기획공연입니다. 특히 과학마술이나 서커스 공연 등은 환경교육과 기상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년 새롭고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니 시기에 맞춰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년 열리는 경연대회입니다. 기후변화 백일장, 날씨 그림대회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9~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과학 체험 부스, 벌룬쇼 등 하루 종일 과학이 살아 숨 쉬는 축제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하늘의 화가, 구름’이라는 주제로 하늘 구름 그리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공연



날씨 그림대회

더 큰 꿈을 향해, 다음 5년도 함께해 주세요!

충주기상과학관은 아이들은 호기심을 키우고, 어른들은 기후와 미래를 생각하며 기쁨과 영감을 더하는 과학관이 되도록 전시시설물을 개선하고 체험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갈 빛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QR코드로 접속하여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문의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문의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날씨누리에서 본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는 어떻게 생산된 건가요?”, “값이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기상청 홈페이지처럼 데이터를 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생산하는 다양한 자료를 인터넷 창구인 기상자료개방포털과 API허브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포털을 통해 원하는 지점과 기간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가 API허브 활용 방법, 기상청 자료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문의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면 정말 ‘소나기처럼 쏟아진다’는 표현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데이터를 요청받아 전달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질문들을 접하며, 그 안에 담긴 사용자분들의 ‘진짜 궁금증’이 무엇인지 점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문의를 살펴보자면 크게 데이터 제공 요청 문의, 데이터 활용 관련 문의, 데이터 오류 문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분들이 기상자료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기상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기상자료는 기상자료개방포털과 기상청 API허브 등을 통해 개방되어 있는데, 왜 많은 분이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몰라 문의하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의를 받던 중, 사용자들께 자료를 어디에 쓰실 예정인지 여쭙보았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기상청 날씨누리나 네이버 날씨 같은 사이트에서 본 그래픽을 애플리케이션에 구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찾는 문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목적에 맞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활용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감이 잡히곤 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료를 열어본 후에는 “어떻게 생산된 건가요?”, “단위가 무엇인가요?”, “생산 알고리즘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은 활용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관측 지침이나 기술문서 등을 찾아 안내해 드렸지만, 질문이 매번 다르고 구체적이라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히 여쭙보면,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거나 연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출처와 생성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분들은 데이터 그 자체보다 생산 과정과 특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자료 설명을 넘어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데이터 명세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값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데이터를 받아보신 뒤 “값이 없습니다”, “이상한 숫자가 있습니다”라는 문의도 자주 들어옵니다.

#	YYMMDDHHMM	STN	WD	WS	GST	GST	GST	PA	PS	PT	PR	TA	TD	HM	PV	PN	PN	PN	PN	SD	SD	SD	WC	WP
#	KST	ID	16	m/s	WD	WS	TM	hPa	hPa	-	hPa	C	C	%	hPa	mm	DAY	JUN	INT	HR3	DAY	TOT	--	--
201512110100	108	29	1.7	-9	-9.0	-9	1002.1	1012.7	-9	-9.0	5.2	3.0	86.0	7.6	-9.0	-9.0	-9.0	-9.0	-9.0	-9.0	-9.0	-9	-9	
201512110200	108	29	2.2	-9	-9.0	-9	1001.9	1012.5	-9	-9.0	4.6	2.4	86.0	7.3	-9.0	-9.0	-9.0	-9.0	-9.0	-9.0	-9.0	-9	-9	
201512110300	108	29	2.4	-9	-9.0	-9	1002.0	1012.6	5	-0.6	4.1	1.6	84.0	6.9	-9.0	-9.0	-9.0	-9.0	-9.0	-9.0	-9.0	10	11	
201512110400	108	29	1.4	-9	-9.0	-9	1002.1	1012.7	-9	-9.0	3.6	1.4	86.0	6.8	-9.0	-9.0	-9.0	-9.0	-9.0	-9.0	-9.0	10	21	

예를 들어 위의 자료에서와 같이 -9나 -99 같은 값은 관측되지 않은 null 값을 의미하는데, 이를 오류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분석 과정에서 값이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현상을 데이터 오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 육상예보 조회 서비스에서 중기기온예보구역 코드를 잘못 입력해 표출되지 않는 오류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예보구역 코드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처럼 격자 단위(5km)로 제공되는 단기에보 자료나 예보구역별 예·특보 자료의 경우, 보다 쉽고 명확한 안내가 함께 제공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나기를 지나오며...

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문의를 받고 응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고 그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을 때 받는 감사 인사와 만족의 표현은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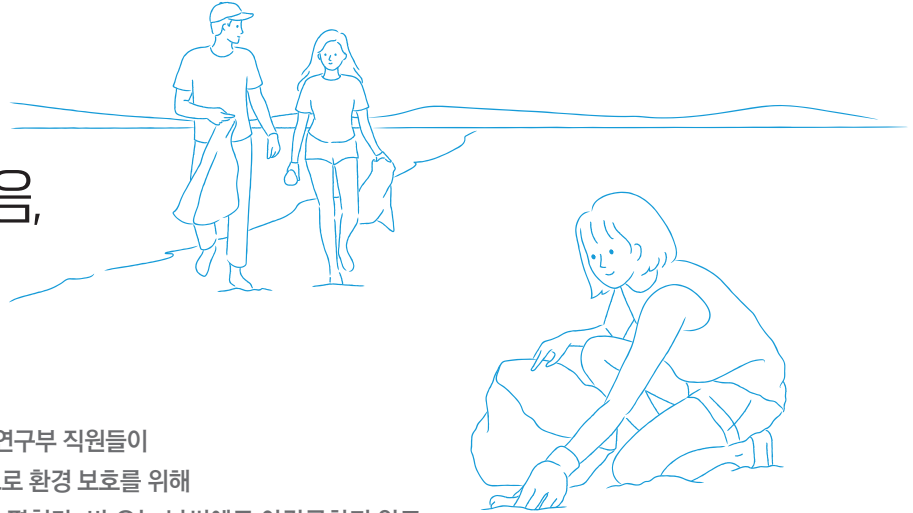
소나기가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 무거워진 물방울이 갑자기 내리는 것처럼, 사용자들의 질문도 각자 분명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갑자기 쏟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문의에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와 배경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소통할 때 한여름 잠깐이나마 무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상자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형식이 복잡하고 해석에 전문지식이 필요해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하기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많은 사용자가 자료를 찾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기상청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친절하고 접근성 높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양방향 소통의 중심에서, 사용자와 데이터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가고자 합니다.



제주에서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플로깅데이



2025년 5월 23일!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부 직원들이
‘국립기상과학원 플로깅 챌린지’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서귀포 올레길 6코스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비 오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손길 속에서, 환경은 물론 동료 간의 끈끈한 팀워크까지
다져나간 뜻깊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강미선 국립기상과학원

플로깅이란?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생활 속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다.



활동 준비물: 쓰레기봉투, 장갑, 우산, 마음가짐

플로깅 데이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당일 예보에 비 소식이 있었지만, 플로깅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활동성을 고려해 편안한 운동화와 옷을 챙겨 입고, 쓰레기를 줍기 위한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을 빠짐없이 준비했다. 또한, 비에 대비해 우산과 비옷, 자외선 차단을 위한 모자까지 챙겨 플로깅 장소인 서귀포 올레길 6코스 검은여 쉽터 인근 해안가로 출발했다.

울퉁불퉁한 바위틈, 쓰레기는 한가득

우리는 바위가 많은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작은 쓰레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바위틈에는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숨어 있었다. 스티로폼 조각, 빈 병, 담배꽂초, 끈, 과자봉지, 낚시 도구 부속품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특히, 굴, 보말, 소라 껍데기도 많이 버려져 있었는데, 바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사실 이런 것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쓰레기봉투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보며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경험은 해양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금 체감하게 해주었고, 바위틈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쓰레기들이 얼마나 쉽게 바다로 흘러들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환경을 향한 조심성과 경각심이 절로 생겨났다.



흐린 날씨 속 단단해진 팀워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쓰레기를 줍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미끄러운 돌 위에서 서로 균형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봉투를 벌려주는 등 서로를 돕고 챙겼다. 우산을 함께 쓰며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팀워크도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료로 넘어, ‘함께 지구를 지키는 동료’라는 연대감이 깊어졌다. 비와 땀으로 젖은 옷차림 속에서도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시간은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까지 모두 챙긴 뜻깊은 경험이었다.



쓰레기를 주워, 운을 모아보자

이번 활동을 통해, 이 플로깅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해안가의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행위 속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담겨있었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쓰레기를 줍는 건 다른 사람이 버린 운을 줍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함께 쓰레기를 주워, 서로의 운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세상의 모든 육아 엄마를 응원합니다!

손웅기 부산지방기상청

육아는 장비빨~ 육아 스트레스는 힐링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은 올해 초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육아맘·육아대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마련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응원하는 육아 힐링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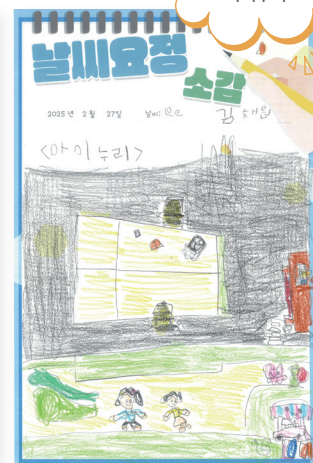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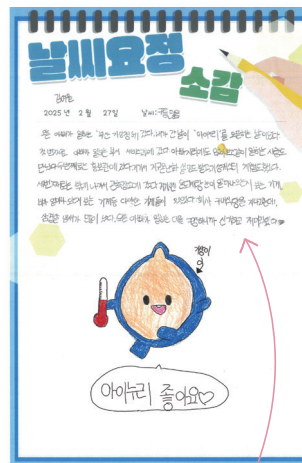
어서 와! 엄마 회사는 처음이지?

‘부모님 직장 견학 프로그램’

일과 자녀 돌봄의 균형을 위해 설치된 부산지방기상청 자녀 동반 사무실 ‘아이누리’의 개소식이 올해 2월에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갓 걸음마를 뚫은 아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총 11명의 직원 자녀들이 함께하며 부모님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엔 낯선 공간에 아이들이 어색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근무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사무실을 체험한 아이들은 즐거움과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보 현업실 대형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등장하자 무척 신기해하고, 부모님의 책상 위에 자신의 사진이 있는 걸 보고는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관측 장소에서 엄마가 직접 해주는 설명을 듣고, 기상홍보관에서 아빠와 함께 기상캐스터 체험도 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일터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고, 직원들에게도 자녀와 함께한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로 남았습니다.



예쁘게 그린
'아이누리' 그림

오늘 아버지가 일하는 '부산기상청'에 갔다. 내가 간 날이 '아이누리'를 오픈하는 날이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일하는 부서 서비스과에 갔다. 아빠 자리도 앉아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만났다. 두 번째로는 홍보관에 갔다. 거기서 지구온난화 설명도 받고, 기상캐스터 체험도 했다. 세 번째로는 밖에 나가서 관측 장소에 갔다. 거기엔 온도계랑 눈이 얼마나 오는지 보는 기계, 비가 얼마나 오는지 보는 기계 등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다. 회사 구내식당을 지나갔는데, 삼겹살 냄새가 많이 났다. 오늘 아버지가 일하는 데를 구경하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사진 한 장에 담긴 가족의 의미!

‘해피해피한 가족사진 공모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해피해피한 가족사진 공모전’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웃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한 직원은 평소 사진 찍기를 꺼리던 부모님과 나들이를 나가 사진을 촬영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자녀들과 웃긴 포즈를 연출하며 여러 번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망가진 사진만 남았으며 아들에게 “이런 사진도 받아주냐며”는 핀잔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으며, 많은 직원들이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었던 따뜻한 이벤트로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향기로 치유되는 육아 스트레스!

‘엄마 힐링 체험 프로그램’

퇴근이 없는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부모님들을 위해 ‘아로마 테라피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상청 마음치유센터 지원으로 마련된 이 체험은 직원들에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향수를 고르고 직접 조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 고민과 양육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서로를 공감하고 응원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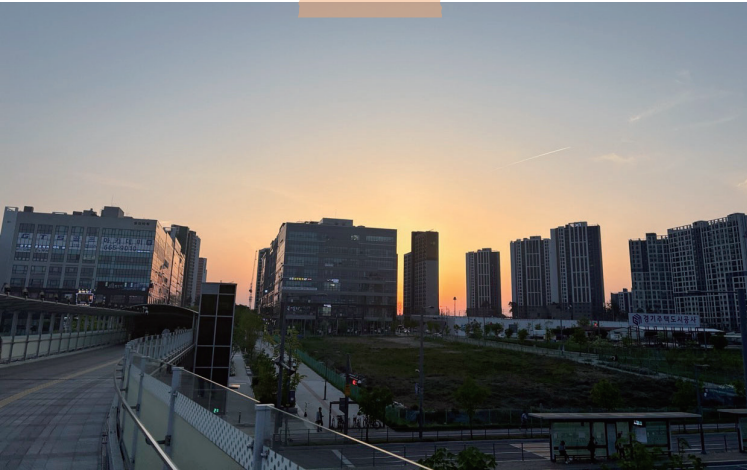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녀에게 직접 만든 향수를 자랑하고 싶다”, “업무 중 찜을 내어 참여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향기만큼이나 따뜻했던 이 체험은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진심을 담은 육아 지원은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육아는 매일이 도전이고, 기적이며,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여정’이라고요.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육아 중인 직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부산지방기상청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육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육아맘, 육아대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경기도민의 시간은
새벽에 시작된다
- 먼저 도착한 계절

손민석 수도권기상청

“...아버지, 제가요,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나까?
많은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이 대사는, 경기도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꿰뚫는다. 당연하게 살아오던 나의 시간 속에서 처음 들었던 드라마 대사가 내 삶을 인지시켜 준다.

경기도민의 하루는 늘 조금 일찍 시작된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오래.

새벽 5시 30분,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도시도 잠든 듯 조용하다. 도로는 잠시 비어 있다가 하나둘씩 불이 켜진다. 나와 같은 사람들-서울과 경기도를 남에서 북,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며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이들-이 묵묵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버스정류장에 서서 하늘과 바람과 기온을 먼저 마주한다. 변하는 기상데이터로 계절을 알기 전, 이상하게도 매일 이 시간, 내 몸이 먼저 계절을 느낀다.

겨울에는 정류장 전신주에 앉은 참새들이 몸을 동그랗게 부풀리고 있다.

참새는 사계절 내내 우리 곁에 있지만, 겨울의 참새는 조금 다르다. 몸속 온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더 크게 만들고, 바람을 피할 자리를 찾는다. 그 모습이 꼭, 이 계절을 견뎌내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괜히 사랑스러워진다.

눈이 오는 날이면, 버스 창밖 풍경은 마치 슬로모션 영화 같다.

조용히, 꾸준히, 하얗게 덮이는 세상. 그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출근 중이다. 지각하지 않으려 눈길을 걷는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다. 참새의 지저귀음이 다시 길어진 아침, 버스정류장 옆 개나리가 피어 있는 걸 처음 본 날, 기상정보보다 먼저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느낀다. 출근길 수도권기상청 앞 나무에는



벚꽃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상청 직원으로서 개화를 관측하는 일보다, 사람으로서는 한 송이 꽃, 한 번의 바람결로 먼저 알아차리는 게 빠르다.

여름은 모든 게 일찍 시작된다. 해는 부지런히 뜨고, 바람은 덥다.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장마와 폭염 사이에서 우리는 숫자와 씨름하지만, 아침 출근길 버스 창가에 드리운 햇살이 먼저 내게 알려준다.

오늘도 더울 거라고,

오늘도 길게 숨을 참고 있어야 한다고.

습한 공기와 가득 찬 지하철 속에서 지쳐도, 퇴근길 들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다.

가을은 고요 속 분주함이다. 아침·저녁으로 하늘을 가득 채운 노을이 단풍을 물들이며 첫서리가 언제 내릴지, 첫얼음은 언제 생길지 하루하루 긴장감 있게 관측한다.

지하철에서 내리며 본 붉은 단풍잎,

전봇대 위를 맴도는 마지막 제비 한 마리.

봄의 시작을 알렸던 제비는 이제 집을 남겨두고 전선 위에 내려앉아 남하 준비를 하며 내년의 만남을 기약한다.

“전국 첫서리 관측”

“작년보다 3일 빨라진 첫얼음”

이런 문장은 숫자 너머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다.

계절은 흐르고 있지만, 기상청의 시간은 늘 다음 계절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가을은 겨울의 문턱이면서도 봄의 출발선이 된다. 한 해의 마지막 빛깔이 가장 길게 남는 시기.

그 중심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추위질지를 걱정하면서도 내년 벚꽃은 언제쯤 피겠느냐는 질문을 미리 받고 있다. 아마 그래서 가을이 가장 복잡한 계절인지도 모르겠다.

기상업무를 보는 눈과 느끼는 마음 사이, 두 계절을 동시에 품은 채.



“...난 어차피 경기도민이니까 어딜 나가도 서울 나들이다. ...”

<나의 해방일지> 속 염기정의 대사처럼, 어디를 가도 먼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계절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누구보다 깊게 느낀다.

경기도민의 시간은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고, 조금 더 오래 달린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더 넓은 하늘, 더 많은 계절, 더 오래 기억될 순간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 때로는 이 고단한 이동이, 나만의 힐링일 수도 있다.

노을 한 조각, 첫눈의 감촉,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가 그날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새벽의 경기도를 출발하며,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계절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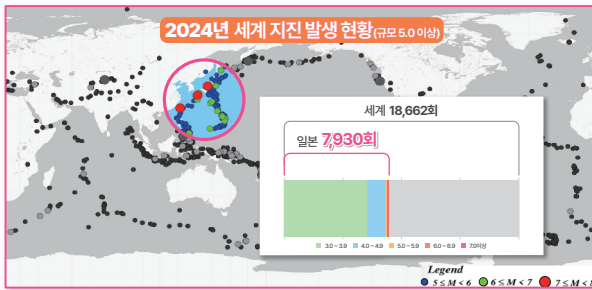
지진 대응 ON 세계는 지금!

전 세계 지진의
3분의1 이상이 발생한 나라가 있다?

EP1. 일본



2024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 중
무려 **42%**가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일본 및 그 주변: 북위 20~49°, 동경 120~154°

(출처: 기상청 2024 지진연보)

일본은 왜 지진이 많이 발생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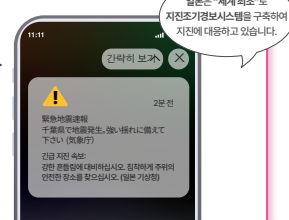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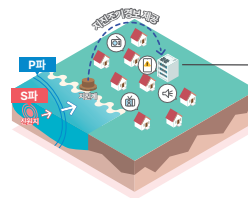


일본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있으며,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등 여러 개의 판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일 년에 몇 번 받을까?

일본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긴급지진속보(EEW)

지진파의 속도차이를 이용해 S파 도달 전에 지진 발생을 알리는 시스템



동일본 대지진(2011년) 후 발표된 일본 긴급지진속보 횟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표 횟수	97	16	9	6	7	3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표 횟수	7	16	8	17	11	15
연도	2023	2024	출처: 일본 기상청			
발표 횟수	17	33				

2024년 주요 긴급지진속보 사례 노토반도 지진 (2024.1.1.)

발생 일시	2024년 1월 1일 16시 10분경
최대 진도	7



EEW 작동 후 사회 기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적용 사례



지진 발생



지진 정보 전달



열차



공장 내 생산라인



엘리베이터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당시에는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한 1만6천대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정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조기경보’ 운영(2015년~)과 함께
2022년부터 ‘지진현장경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진



활용가능 사례 (향후 계획)

일본 여행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외국인 정보 제공 APP
safety tips

▶ 일본 내 외국인 여행자와 거주자 모두를 위한 지진 조기 경보, 지진해일(쓰나미)경보, 기상경보 등 재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푸시 알림 앱

* 일본어를 포함한 14개 국어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도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들을 위해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다국어 제공



ENG | CHN | JPN

언어 변경 방법

- 1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방문
- 2 우측 상단 클릭
- 3 영어·중국어·일어 중 1 택
- 4 변경 완료!

위급·간급 재난문자 영문 병기 시행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 명칭을 영문으로 표기

우리나라 기상청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하여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는 어디?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2025년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 포럼 (6월 26일)



기상청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2025년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 포럼'을 개최, 공공 분야 기상융합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청, 시민참여형 기후변화과학 프로그램 '우리동네 기후연구소' 추진 (7월 5일)



수도권기상청은 수도권 지자체 및 기후변화 관계기관 등과 협업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과학 프로그램 '우리동네 기후연구소'를 본격 추진한다. 프로그램에는 총 6개 지자체의 270여 명이 시민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7월 10일)



대전지방기상청은 충청남도와 '제13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 수상작으로는 SolaLink 팀의 '조도 기반 정밀농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융합 센서 네트워크'가 선정됐다.

청주지청, 시니어 대상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 운영 (7월 17~18일)



청주기상지청은 제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제천시노인종합 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약 1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체험교육을 운영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아이가 느끼는 극한 더위를
직접 체험해 본 어른의 반응은?**

실험카메라 #지면온도 #위험해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쉽게 지치는 과학적 이유를 아시나요? 아이들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해요. 여기에 더해, 흔히 놓치기 쉬운 환경적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열입니다! 기상청은 시민들의 참여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높이의 더위를 체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지면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약 15도 이상 높았고, 실제 지면온도는 무려 50도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뜨거운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장시간 앉아 일하는 어르신들 역시 같은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올여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자료실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로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X(트위터)
x.com/kma_skylov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강영숙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7월이지만 시원하게 탁 트인 장봉도 해안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니 더위와 짜증이 확 가셨습니다.



임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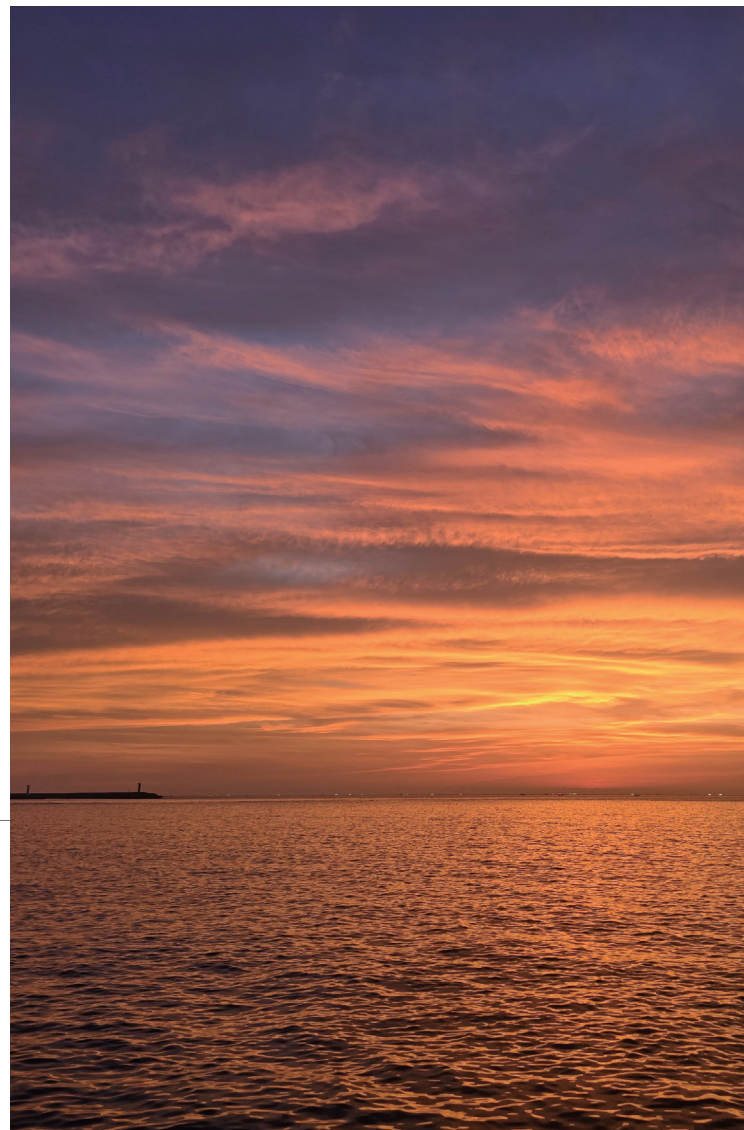
유람선을 타고 서귀포 앞바다에서 보는 범섬과 한라산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바다 위에 있으니 뜨거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네요.

김다슬

뜨거워진 날씨에 수온도 많이 올라와 바다에 맨몸 입수가 가능한 계절이 되어 행복합니다. 저녁 수영하면서 본 아름다운 여름밤의 노을입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 김은경

침묵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도시의 소음은 뒤로 멀어지고, 가슴엔 고요한 숨결이 내려앉습니다. 바람은 숲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땀방울마저 맑게 느껴지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납니다.

📷 김동석

지난 주말, 혼자 한강 변을 거닐다가 주황색 능소화가 핀 담장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다보았습니다.



📷 함상규

오랜만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잠깐 쉬는 틈을 타서 옥상에 올라 주변을 바라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자!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8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 확인은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에서!

폭염엔

물, 그늘, 휴식 기억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